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1

Table listing EBS 1 programs such as 'EBSe 생활 영어', '고교 Basic Grammar-junior',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like '올림포스', '고교 Basic Grammar-junior',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like '2015 공민증개사 시험대비강좌',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4일 (음 8월 2일 癸巳)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etc.) with descriptions and lucky numbers.

“불혹이라는 위기, 연기 폭 넓힐 기회 됐죠”

영화 ‘탐정’서 생활밀착 연기 도전한 권상우



“지금이 제일 위기에요.” ‘탐정 : 더 비기닝’ 개봉을 앞두고 만난 배우 권상우(사진)는 배우로서 현재 자신이 선 위치를 이렇게 설명했다. 권상우는 1976년생이니 우리 나이로는 올해가 마흔 살이다. 드라마 ‘맛있는 청춘’으로부터는 데뷔 15년차다. 스타에게 마흔이라는 나이는 썩 반가운 손님이 아니다. 그러나 연기자로서는 끝짓을 내려놓고 연기의 폭을 넓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이를 먹는 것이 결국 대중과 멀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다시 대중과 거리를 좁히려던 작품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하다 보면 어느 한 쪽의 공백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내년까지도 중국 촬영을 계속해야 해요. 그래도 당분간은 영화에 집중하고 싶어요.” ‘탐정’은 그래서 권상우에게 때맞춰 찾아온 기회였다. 이 영화에서 형사가 되고 싶었으나 신체검사에서 탈락하고, 아내와 자식 등이 있는 만화가 주인으로 살면서 탐정의 ‘헛꿈’을 꾸는 강대만을 연기했다. 재활용품 수거일에 종이 박스를 끌어안은 채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여기에 걸어줘”라며 새끼손가락을 내미는 강대만은 최근 권상우가 연기해온 인물들과는 동떨어진 생활밀착형 인물이다. 이 영화는 권상우의 표현대로 “전작들의 흥행 실패로 좋은 작품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들어온 좋은 작품”이었고 강대만은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역할”이었다. “망가지는 걸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늘 작품에는 열린 상태예요. 촬영할 때 몸 관리를 이렇게 안 한 작품은 처음이에요. 체중이 2~3kg 늘었으니까요. 어떤 분이 (20대 청춘스타의 모습을 뽐냈던) ‘동감내기 과외하기’ 때 권상우가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탐정’은 코미디 요소가 강한 범죄 추리극이다. 이는 멋진 모습에 연연하지 않은 채 한 집 내려놓은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권상우에게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였다. “정해진 스텝이라는 어떤 배우가 연기해도 흘러가는 길이 정해진 듯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희로애락을 표현하면 되겠다구나 했죠.” 권상우에게 이 영화는 촬영현장에서 스태프, 동료와 함께 하는 배우로서의 열정과 기쁨을 일깨웠다는 의미도 있다. “한창 바빴던 20대에는 영화를 찍으면서 제작사 대표가 누

군지도 모를 때가 있었어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제야 스태프들을 둘러볼 수 있게 됐어요. 특히 ‘탐정’은 성동일 선배, 김정훈 감독, 제작사 대표, PD와 둘러앉아 매일 술 마시며 영화 얘기를 했기에 현장을 깊게 즐기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중에서도 강대만과 ‘룸비’를 이루는 베테랑 형사를 맡은 성동일은 권상우에게는 ‘역할모델’ 같은 존재였다. “성동일 선배는 제가 가야 하는 지점의 요소를 가진 배우예요. 전 멋진 것만 할 수 있는 배우가 아니고 어떤 장르거나 코믹 요소가 있는 캐릭터를 찾게 되거든요. 그걸 가장 잘하는 게 성동일 선배예요. 저는 선배와 함께 웃으며 연기한 기억밖에 없는데 막상 완성된 영화를 보니 선배의 진지하고 무거운 모습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대단한 배우구나 했어요.” 그는 ‘권상우만의 작품’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동감내기 과외하기’,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성장기 학원 물의 대표작은 이미 했으니까요. 이제는 ‘권상우가 잘하는 액션영화’도, 관객이 많이 보는 권상우의 슬픈 멜로도, 이번보다 더 마음 놓고 웃기는 코미디도 찍고 싶어요.” 그는 2009년 배우 손태영과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아내와는 결혼하고 처음 1~2년은 많이 싸우다가 지금은 제가 아내에게 완전히 맞춰서 살고 있죠. (웃음) 여전히 풋풋해요. 중국 촬영으로 집을 오랫동안 비워야 하는데 가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더 들어요.”

조용필, 5개 도시 투어 콘서트

11월 28일 광주주예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가왕’(歌王) 조용필(사진)이 오는 11월 5개 도시를 도는 전국투어에 나선다. 광주 공연은 11월 28일 광주주예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다. 11월 공연업계에 따르면 조용필은 11월 14일 대구 엑스코를 시작으로 21일 고양 킨텍스, 12월 5일 부산 벡스코, 12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5 조용필 & 위대한 탄생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투어는 조용필이 19집 ‘헬로’를 크게 히트시킨 2013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무대다. 10년 만에 발표한 19집은 여러 세대의 사랑을 받으며 26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전국투어는 2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19집 히트곡을 비롯해 47년간 활동하며 사랑받은 국민적인 명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공연 휴지를 가진 조용필은 지난 7월 중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으나 2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마친 후 공연 연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 예매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5개 도시 공연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YG, 신인 그룹 아이콘(iKON) 출격

15일 ‘취향저격’ 선공개

YG엔터테인먼트의 대형 신인 그룹 아이콘(iKON)(사진)이 이달부터 데뷔 플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7인조 아이콘은 오는 15일 선공개곡 ‘취향저격’을 발표하고 10월 1일 데뷔 미니앨범 ‘웰컴 백’(WELCOME BACK)과 11월 2일 정규 앨범 ‘웰컴 백’을 연속해서 발표한다. 또 10월 3일에는 데뷔 그룹으로는 이례적으로 1만여 명 규모의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데뷔 콘서트 ‘쇼타임’(SHOW-

TIME)을 개최한다. 아이콘은 이제 데뷔하는 그룹이지만 멤버별 인기가 높을 정도로 스타급 신인이다. 지난해 팀 멤버를 뽑는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믹스&매치’(MIX & MATCH) 등을 통해 ‘끼’와 재능이 검증됐다. 이들이 처음 선보이는 음원인 ‘취향저격’은 미디움 템포의 감성 힙합곡으로 비아이가 작사·작곡에, 바비가 작사에 참여한 것이다. 아이콘은 11월 선보일 정규 앨범에선 5곡 이상을 타이틀 곡으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연합뉴스